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자연관찰 키트’로 도시의 가을 기록해볼까

김옥진 마음놀이터 대표 오늘 ‘자연관찰일기’ 강좌

인간 이외의 시선으로 도시의 자연을 바라보고 기록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은 25일부터 29일까지 ‘자연관찰일기’ 강좌를 개최한다.

김옥진 마음놀이터 대표가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이틀 간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1부 ‘자연관찰일기 I’는 강의 형으로 일상의 변화를 느끼는 삶에 초점을 맞춰 곤충의 풀과 꽃 등 일상에 공존하는 비인간 생명체를 알아본다.

2부 ‘자연관찰일기 II’는 현장체험형이다. 내 사람을 더 깊게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야의 자연관찰 및 드로잉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사로 나서는 김옥진 대표는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한 2022-2023 창의예술교육랩 ‘다름생명체의 시선’ 랩장을 맡아 랩원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교구 ‘자연관찰 키트’를 개발한 이력이 있다.

수강 대상자는 광주시민(성인) 선착순 15명으로 문화예술작은도서관(062-670-7968)을 통해 전화 접수 가능하다. 수강생 전원에게는 자연관찰 키트(드로잉에 필요한 도구, 관찰 노트 등)가 무료로 제공된다.

한편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올해 강좌는 7·9·11월 총 3회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10개 문화예술단체, 시민과 예술축제 장 연다

●제15회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광주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적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사)한국예총광주연합회(이하 광주예총)의 제15회 아트페스티벌이 오는 27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 야외무대와 플라자 브릿지 일대에서 펼쳐진다.

27일 ACC 하늘마당·플라자 브릿지 일대 국악·무용·미술 등 10개 장르서 공연·전시

‘아트페스티벌’은 예술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장르별 갈등 해소 및 예술인들의 화합 도모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문화예술축제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예총 10개 문화예술단체의 창작예술 작품 공연·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광주국악협회에서는 하늘과 땅, 인간을 의미하는 울림의 소리를 표현한 빛고을영무장농악단 년설의 ‘축제’, 완도 급당도 농악놀이를 무대화한 문화예술이음의 ‘서한유류 버꾸춤’ 무대를 선사한다.

광주연극협회에서는 극단 ‘좋은 친구들’이 나서 ‘평상위에 할머니들’ 공연을 선보인다. 할머니 3명의 구수한 입담을 바탕으로 춤, 노래, 관객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질 예정이다.

광주음악협회에선 2개 단체가 무대에 오른다. 광주전남종합예술인협회 성악가 6명이 출연해 다채로운 음악 무대를 선사하며, 색소폰·피아노·베이스·드럼 구성으로 재즈와 크로스오버 음악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아트플래닛재즈밴드가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공연예술을 펼쳐낸다.

광주영화인협회에서는 추억의 변사극 무성영화 ‘이수일과 심순애’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추억여행을 선물한다. 목소리의 마술사 변사 최영준의 신과 연기와 심금을 울리는 노래 솜씨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광주연예협회는 ‘가을 음악회’를 주제로 대중가수 진이랑·진국아·오목대의 무대를 준비했으며, 광주무용협회는 스코틀랜드 농촌을 배경으로 공기요정을 표현한 광주로얄발레단의 ‘라 실피드’, 화려하고 역동적인 안무의 문서빈 무용단 ‘시월, 베르니케’ 공연을 올린다.

이와 함께 ACC 플라자 브릿지 일대에서 열리는 전시아트페스티벌은 27일까지 진행된다.

광주전남건축가회 건축가들의 지역 건축 일상을 담은 전시를 비롯해 광주



1-2. 광주무용협회 광주로얄발레단 3. 광주국악협회 빛고을영무장농악단 공연

문인협회 회원 47명의 시화전이 마련됐다. 광주미술협회는 동시대 예술의 다원성을 담은 23명 작가의 작품을, 광주시전협회는 과거와 현재의 사진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4명 작가의 사진 작품을 전시한다.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은 “예술 각 분야의 구분을 뛰어넘어 창작과 향유의 기쁨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며 “아트페스티벌이 광주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 예술인들의 문화적 품격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1.

●27일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최희준 지휘·피아니스트 한상일 라흐마니노프·프로코피예프 협연



낭만주의 거장 선율 속으로

러시아 낭만주의 거장 라흐마니노프와 프로코피예프의 서정적 선율이 울려 퍼진다.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광주시립교향악단 387회 정기연주회 ‘거칠게 아름답게’다.

이번 연주회는 최희준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한상일의 협연으로 펼쳐진다.

연주회 포문을 여는 곡은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 특유의 타악기적인 피아노 음색과 독특한 관현악 소리가 어우러져 강한 생명력과 역동성뿐 아니라 부드러운 화성과 서정적인 표현의 무대를 선사한다.

협연에 나서는 피아니스트 한상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과장, 독일 뉘른베르크 음악대학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2005년 프랑스 에피날 국제 피아노 콩쿠

르에서 1위 없는 2위에 오르며 세계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듬해 2006년 미국 미주리 서던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 2011년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콩쿠르 파이널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2016년 SO NY Classical에서 첫 정규 솔로 음반 ‘라흐마니노프&프로코피예프’를 발매했다.

이날 광주시향을 이끌 지휘자 최희준은 현재 한양대 지휘전공 교수 및 제7대 수원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재직 중이다.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지휘과에서 디플롬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드레스덴 국립음대 개교 이래 최초로 지휘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독일 전 음대 지휘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위, 바트 홈부르크 지휘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여성가족재단, ‘딥페이크’ 범죄 예방

신고 전화·피해지원센터 등 홍보 캠페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최근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주경찰청, 서부경찰서,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YWCA, 세이프온과 함께 서구 동명중 앞에서 딥페이크 사이버범죄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캠페인에서는 청소년 대상 첨단 조작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처벌 조항과 피해를 겪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신고 전화, 삭제·심리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를 홍보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일 광주시민마루에서 ‘딥페이크 사태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여성단체 및 일반 시민 9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재단은 지역 여성계와 함께 향후 지속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Advertisement for Gwangju Daily Newspaper. It features the headline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When you open Gwangju Daily, the future of Gwangju and Jeonnam is visible). Below the headline, it lists phone numbers for various regional offices (시내지국 and 지방지사)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 A QR code and the website URL www.kjdaily.com are also included.